대구주보

사순 제5주일
2013.3.17.(다해) 제1827호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ubo.or.kr

울리브산 도미누스 플레빗 성당

† 오늘의 전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요한 8,1-11 참조)

간음한 여인은 실제로 죄를 지었습니다. 군중들도,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의도나 불순한 호기심으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깨끗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게 그 간음한 여자를 불쾌하게 여기고 단죄할 자격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제1독서 이사 43,16-21 **제2독서** 필리 3,8-14 **복 음** 요한 8,1-11.

입 당 송 하느님, 제 권리를 찾아 주소서. 불충한 백성에게 맞서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옵니다.

화 답 송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영성체송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간음하다 잡힌 여자

이광호 라우렌시오 신부 | 베드로관 관장

어릴 적에 오늘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서 단순하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였던 기억이 납니다. :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하려던 이야기, 이에 예수님께서는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고 멋진 지혜로 그 사람들을 물리치신 이야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한 문장에로 마음이 모아집니다. :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과 간음한 여자와의 만남, 모두가 떠나간 뒤의 이 고요한 만남이 가슴을 울립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자기 자신을 옥죄는 수치스러움에서의 벗어남 때문만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을 것 같았고,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끔찍한 시간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 계셨습니다. 아니, 예수님만은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고요한 만남과 사랑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아끼셨습니다. 사람들이 여자를 고발하며 대답하기를 재촉할 때까지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몸을 굽히시고 땅에 무엇인가만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에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님과 여자만이 남았습니다. 이렇듯 마지막까지 말씀을 아끼신 예수님의 그 침묵과 행동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분의 기다림이 아닐까, 어떡해서든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 안고자 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인내의 기다림**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져옵니다.

이런 가슴 뭉클한 감동은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 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물음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단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과 용서**를 가져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그분의 참 사랑 속에 머무르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의 신비에 동참하는 이 은총의 사순시기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무한한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순시기가 은총의 때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 하느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느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제껏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헌장과 계시헌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Sacrosanctum Concilium), 또는 짧게 〈전례헌장〉이라 부르는 문헌입니다. 전례헌장은 공의회의 주요 문헌들 중 가장 먼저 반포되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례에 대한 관심이 컸고, 시급하게 전례의 개혁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개혁 가운데 교우들의 일상 신앙생활에 가장 크고 실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킨 것이 바로 전례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전례는 예수님의 활동

중세로부터 공의회 이전까지 전례는 이른바 ‘홍주’(전례서에 빨갛게 표기된 지시문)에 따라 거창하게 거행되는 퍼포먼스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제단은 신자들과 동떨어진 특별한 공간이었고, 전례 언어인 라틴어는 신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스런 언어였으며, 전례 성가도 전문 성가대원과 성직자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없거니와 그것을 이해할 수조차 없었고, 생활과도 별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공의회의 교부들은 전례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두고 도대체 전례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부터 궁리하였습니다. 공의회의 가르침은 요컨대 전례가 의식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사제 예수님

공의회에 따르면, 전례는 근본적으로 복잡한 규정이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요 행위입니다(전례헌장 7). 사제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업을 교회의 전례 행위를 통하여 계속하고 계십니다(전례헌장 6).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이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듯이, 우리가 전례를 통해 그것을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예식이 아닌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례는 하느님을 공경하는 측면에서는 인간의 행위라 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분인 하느님의 활동입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므로 전례를 통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지만,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당신의 지체들인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맏형으로서 우리와 함께 아버지 하느님께 제물을 드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치시는 제물은 당신의 몸, 곧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기도와 희생과 보속을 예수님의 손에 맡겨 드리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상 제사에 합쳐져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목단상

교황 사임 유감

- 역대 교황님과 한국교회 ① -

최홍길 레오 신부 | 수성본당 주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지난 2월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의사를 밝히셨고 28일자로 퇴임하셨다. 2005년 4월 19일 제265대 교황으로 선출되셨던 교황님께서는 당시 78세의 고령으로, "나는 여러분의 기도에 나 자신을 맡깁니다."라는 말씀으로 신자들의 기도를 청하며 만 7년 10개월 9일 동안 교황직을 성심을 다해 수행하셨던 것이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성하의 사임을 맞아 역대 교황님과 한국교회를 일별해 보면, 역대 교황님들은 한결같이 한국교회에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 오셨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민족에 관한 보고를 처음으로 접했던 알렉산데르 7세는 1660년에 조선 지역을 남경대목구에 예속시켜 조선 선교를 장려했다. 클레멘스 11세는 1702년 조선에 대한 재치권을 남경교구에서 북경교구로 이양했으며, 비오 6세는 선교사의 도움 없이 탄생한 조선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며, 하루 빨리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낼 것을 명하고 교황강복과 함께 은화 500냥을 선교자금으로 내놓으셨다고 한다. 비오 7세는 1801년 신유박해로 초토화된 조선교회를 위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 괴로워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레고리오 16세는 1931년 조선교회를 북경교구에서 독립된 조선대목구로 설정, 초대 대목구장으로 파리외방전교회 브뤼기에르 주교를 임명하고 동시에 파리외방전교회에 조선교회 사목을 위임했다. 복자 비오 9세는 〈기해박해 순교자록〉을 처음으로 접한 후 1857년 조선 순교자 82명을 가경자로 선포했다. 성 비오 10세는 한일합방의 시련에 처한 우리 민족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큰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1911년 4월 8일 조선대목구를 서울대목구와 대구대목구로 분할하신 것이다. 비오 11세는 전주지목구를 설정, 최초로 한국인 성직자에게 자치를 맡겼는가 하면, 평양·연길·광주·춘천지목구를 설정하여 한반도 지역교회의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비오 11세는 또한 1925년 한국 순교자 82명 중 79위를 복자로 선포했으며 다음해인 1926년에 뮈텔 주교를 한국교회 최초의 대주교로 임명하였고, 1931년에는 조선대목구 설정 100주년을 맞아 개최된 한국교회 최초의 공의회(사목회의)에 무니 대주교를 교황사절로 파견하였다.

비오 12세는 왜정치하의 폭압과 한국동란의 고난을 겪고 있던 우리 민족에게 교회 내 각종 사업과 활동을 통해 자부적 사랑을 베푸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막하신 복자 요한 23세는 1962년 한국교회의 교계제도 설정을 공포했다. 이로써 한국교회는 선교지 교구에서 벗어나 정식 교구의 자격을 갖추게 됐고, 한국 주교들은 명의주교로서 교황대리감목이 아니라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교구 관할의 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다음주에 계속 이어집니다.

용서와 사랑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너라."

아들이 가더니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냥 오느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예, 빌려주지 않던데요." 아들은 시무룩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절당한 아들은 적잖이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낫을 빌려 주지 않았던 그 이웃집에서 이번엔 반대로 호미를 빌리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호미를 가져다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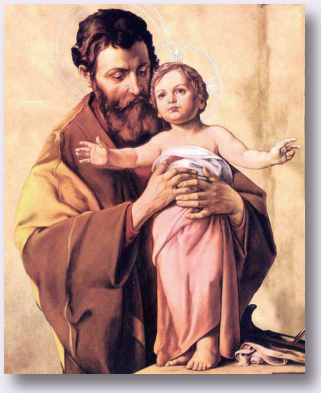
"아니, 아버지! 그들은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그들에게 빌려줍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했습니다.

"이 녀석아! 그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복수하는 것이다. '그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빌려 준다'라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그것은 증오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집에서 빌려주었든지 빌려주지 않았든지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그 집에서 필요하니까 빌려주는 것이 바로 용서요, 사랑이다. 그러니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복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증오의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용서와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갑시다.聖

금주의 성인



성 요셉(3월 19일)

성모님의 배필이자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로 나자렛에서 목수 일을 하고 계셨던 다윗 가문의 요셉 성인께서는 성모님과 약혼을 하셨는데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신 사실을 몰랐다가 천사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알고 성모님을 아내로 맞으셨다. 성모님과 예수님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내며 성가정(聖家庭)을 이끌어 가신 성인께서는 가톨릭 교회 전체의 주보로 공경을 받으실 뿐 아니라 노동자, 가정, 동정녀, 환자, 임종하는 자의 주보성인이며 또한 성모님과 더불어 한국 교회의 공동수호자이시다. 많은 나라에서 성인의 축일을 노동자의 날(노동절)로 지낸다.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3월 20일 수요일은 (故) 박도식 도미니코 신부님 10주기입니다.

새 교황 선출 특집

콘클라베(Conclave)

새 교황을 선출하는 봉쇄 회합은 두 개의 선언문으로 시작되고 종료된다.

"Extra omnes" 외부인 전원 퇴장: 시스티나 성당에 콘클라베 투표를 위해 모인 선거인 추기경을 제외한 모든 이를 퇴장시키는 선언이다.

"Accepto" 수락합니다: 선거인원의 3분의 2 이상 득표로 선출된 추기경이 증인(의전담당 사제) 2명 앞에서 교황 선출에 동의하는 선언이다.

누가 안에 남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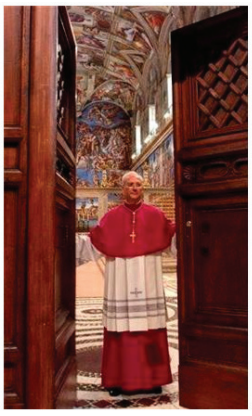
1970년 교황 바오로 6세가 개정한 법규에 의거, 교황좌(사도좌) 공석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만 80세 미만인 추기경들이 선거권을 얻는다.

누설 금지

선거인 추기경들은 한 사람씩 복음서에 손을 얹고 콘클라베의 엄격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지킬 것을 선서한다. 여기에는 콘클라베 중에 일어난 일은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는 서약도 포함된다.

도청 방지

바티칸 보안경찰은 시스티나 성당에 마이크 또는 기타 도청장치가 없는지 확인을 위해 감지 장치로 성당 내부의 탐지 작업을 한다. 바닥재 아래에는 전파차단 장치를 설치해, 혹시 있을지도 모를 휴대전화나 전자기기의 데이터 송수신을 방지한다.



투표지의 라틴어 표기

추기경들이 투표지에 쓰는 글자도 라틴어다. 투표지 상반부에는 "**Eligo in summen pontificem**"(나는 교황으로 뽑는다)가 인쇄되어 있고 하반부에 뽑고자 하는 이의 이름을 쓰게 되어 있다. 투표지는 접어서 추기경 서열순으로 투표함에 넣는다.

연기 신호

계표, 검표가 끝난 투표지는 실로 꿰어 모은 다음 화로에 넣고 태운다. 투표지를 태운 연기는 화로와 연결된 굴뚝으로 올라가 성당 밖으로 신호를 보낸다.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이 검은 연기를 보면 미결, 흰 연기를 보면 교황 선출이 이뤄진 것이다.

연기만 봐서는 모르겠다면, 굴뚝만 쳐다보지 말고 귀를 기울이면 된다. 새 교황이 탄생하면 성 베드로 대성전의 종이 울리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린다.

그들만의 탓이 아니고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3월 18일(월) 오전 10시	경산성당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3월 18일(월) 오전 10시 30분	범어성당
포항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3월 18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성요셉 아버지학교 월례미사	3월 18일(월) 오후 8시	꾸르실료 교육관
김천지역 밀알회미사	3월 19일(화) 오전 10시	평화성당
구미지역 학교복음화를 위한 미사	3월 20일(수) 오후 7시	신평성당
바뇌기도회 월례미사	3월 21일(목) 오후 1시	삼덕성당
대구지역 학교복음화를 위한 미사	3월 21일(목) 오후 7시	성모당

성소 | 피정

예수회 성소모임
일시: 3.23(토) 16:00
장소: 관구본부 (서강대 옆)
주제: 부르심과 응답
대상: 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010)8589-9880

마리아 영성 피정(성체현시, 미사안수)
일시: 3.20(수) 13:00~17:00
4.17(수) 13:00~17:00
지도: 강요셉 신부
문의: 삼덕성당 422-6691

2박 3일 무료 피정(작은예수회)
기간: 3.22(금)~24(일)
장소: 가평작은예수마을
내용: 모든질병과 어두움 버리기
출발: 대구시민회관 앞 11:40
문의: 박데레사 (016)646-0583

24시 성소 피정
기간: 3.23(토) 16:00~24(일) 16:00
장소: 예수마음의집(전남 담양)
주최: 가난한이들의작은자매회
문의: 이루시아 수녀 (061)383-4292

젊은이 부활 전례 피정
기간: 3.29(금)~31(일) 2박 3일
장소: 대구툿찡포교베네딕도수녀원
문의: 313-3431 / (010)8519-3431

성삼일 전례 피정
기간: 3.29(금) 19:00~31(일) 10:00
주제: 나 너를 사랑한다
대상: 만18~35세(여)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010)2649-2045

평창 성필립보생태마을 환경 피정
기간: 7.22(월)~8.16(금) 2박 3일
대상: 초·중·고등부 주일학교
기간: 8.16(금)~25(일) 2박 3일
대상: 가족, 친구 단위 / 8만 원(6식)
문의: (033)333-8066

2박 3일 성령 세미나
기간: 3.22(금) 14:00~24(일) 17: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월막피정의집)
신청비: 12만 원, 교재비: 4천 원
신청: (054)954-0951 / (010)4419-1220

교육 | 모집

예수마음배움터 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3.22(금) 17:30~24(일)
4박 5일: 4.1(월) 14:00~5(금)
8박 9일: 4.22(월) 14:00~30(화)
에니어그램: 4.6(토) 15:30~7(일)
문의: 성심수녀회 (031)946-2337~8

신앙의 해 나자렛 예수 무료 특강
일시: 3.18(월) 14:00~15:30
3.25(월) 14:00~15:30
장소: 바오로딸서원(동성로 공평동)
강사: 박병규 신부(성서신학박사)
문의: 425-5185, 5373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회 일본성지순례
일자: 4.2(화) 다른 날짜 전화 문의
장소: 히라도, 나가사키, 운젠 등
해설·강의: 김길수 교수
회비: 57만 9천 원 (4박 5일)
문의: (02)318-7202

KB 고려익스프레스
포장이사전문업체
대표전화 1577-2400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녜스) 010-5048-7739

안경원 리네뜨
T.427-8070
동성로 금곡삼계탕 맞은편
안경 트렌드의 중심
원장 옥정희 (프란체스카)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의 · 원장 정 순 우 (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2대째 30년 전통"
♣ 성 심 결 혼 ♣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 전문직종 및 초혼 재혼 다량 확보 *
☎ 644-4007, 558-3003
비산네거리 서부초 옆 류성실(마리아)

유방 갑상선 전문
여의사가 진료하는
Maria Breast Clinic
마리아유외과
반월당네거리 농협 3층
T.053)252-6875

전통한복의 명가 대한민국 한복명장
이명자 한복방
· 혼수/예단/수의 · 한산모시 전문점
중구 반월당 삼정그린코아 상가 115호
☎ (053)421-2827/421-2828
이명자(세실리아), 강윤정(아녜스)

척추 · 관절 및 뇌·신경 전문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요통,좌골신경통,목·허리디스크,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류마티스,오십견,근골격질환
○뇌졸중,두통,어지럼증,손발 저림,진전
원장/전문의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네거리 ☎ 053)628-4111

길 안 건 축
리모델링 전문업
옥상방수, 칠, 지붕계량
판넬, 창호, 단열시공
☎ 053)556-6257 김 기 석
010-6608-6257 (다니엘)

BC대구방송 (FM 93.1MHz) 오늘의 강론 3월 18일(월) ~ 3월 23일(토) 07:00, 18:50 박재희(세례자 요한) 신부

교육 | 모집

2013년 계산주교좌성당 사순 특강
기간: 3.19(화)~22(금) 19:30
장소: 계산주교좌성당
강사: 19일 하성호(요한) 신부
20일 조현권(스테파노) 신부
21일 김용민(안드레아) 신부
22일 이찬우(다두) 신부

다문화 아카데미 봉사자 1단계 2기 교육
기간: 3.20~6.5(매주 수) 19: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6만 원)
대구은행 083-13-166832 김명현
문의: 대구가톨릭대 다문화연구소
850-3606, 3978

4월 관덕정 성지순례
일자: 4.21(일) 감곡성당
신청: 3.20(수)부터 선착순
회비: 3만 원(중식 포함)
문의: 관덕정 254-0151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309차: 4.12(금)~14(일)
장소: 한티, 문의: 983-0521
배우자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고려수지침: 4.2(화) 13:30
문학 창작교실: 4.3(수) 14:00
건강태극권: 4.5(금) 13:00
웰다잉 아카데미: 4.11(목) 14:00
문의 및 신청: 254-6115

여성가족부인정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생 모집
기간: 3.19~6.11(매주 화) 9:30
대상: 전문대졸업자 이상
문의: 대구가톨릭상담원교육센터
253-1401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3.18(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네이버카페: 대구대교구 전례꽃연구회

대구가톨릭성서모임 창세기반 모집
일시: 3.26(화) 10:00, 월배성당
신청: 월배성당 사무실
문의: 윤베로니카 (010)9209-9193

가톨릭마라톤동호회 회원 모집
달려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대상: 30대 이상 신자 남, 여(부부 환영)
지도신부: 김명현(디모테오)
문의: (010)3866-2812
www.dgcamara.com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요양보호사 교육원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 모집
접수기간: 1.2(수)~3.29(금)
교육기간: 4.4(목)~6.28(금)
장소: 교구청 교육원 가동 3층
문의: 255-7222(교육비 50만 원)

새빛학교 기초 영어·한문반 모집
영어개강: 3.12(화) 13:00(주2회)
한문개강: 3.12(화) 15:00(주1회)
문의: 교무실 476-3100(교대역)

젊은이모임 옛 멤버 모임 및 미사
일시: 3.24(일) 14:00
장소: 꼰벤뚜알 프란치스코회 수도원
문의: 박상규 신부 (010)5380-8615

카리타스달서구보금자리 입소인 모집
시설구분: 실비부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소: 달서구 소재 아파트 및 주택
대상: 성인 지적 장애인(30명)
문의: 721-7090
재활교사 최희승 (010)2369-3140

사순시기 이태리성물 은제품 특가판매
일시: 2.13(재의 수요일)~
3.31(부활 대축일)까지
주관: 성바오로서원 (남산동)
문의: 256-4592

안내

교구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윤상종, 장태자(요안나)
문의: 253-9550

2013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가격: 3천 원, 250-3048~9

미소나리 misonari 출장뷔페
예식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사회적기업 (주)서구웰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리.kr

한솥도시락
대 구 ☎053)963-1188
한의대점 053)817-3114
오영숙(바울라), 장종미(아녜스)
※단체주문시 대구·경산전역 배달가능
(휴대용 카드 단말기 결제가능)
대학생MT, 체육대회, 성지순례, 성당단체 주문시 「야끔의집」에서 기념품 증정
http://www.hsd.co.kr

2484 익스프레스
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환역기(바오로) 011-514-3855

ANGEL EXPRESS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골프클럽 피팅·수리
● 동대구 골프 프라자(MBC 뒤)
● 월드피아 연습장 內
우리골프(시지 덕원고 입구)
053)752-6556, 791-6554
이 웅 래(가브리엘)

나가사키성지순례
제2차 4월25일~28일(3박4일)
제3차 5월08일~11일(3박4일)
순례경비 59만 5천원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철래(유스티노)

귀금속 최고가 매입
순금, 백금, 18K, 14K
다이아몬드, 은수저, 치아금
황금점 : 황금동 데레사소비센터 內
복현점 : 복현동 농협 하나로마트 內
(주)한국금은거래소 ☎763-8838

인공신장실
신장 전문 내과 수 연합 내과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 건 현(라파엘)
상인역 ☎(053)642-7575